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2, 1부

열왕기상 14-15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여러분 각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이 없으셔도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수세기에 걸쳐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14장과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책들의 시작과 끝 부분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장은 특히 분열된 왕국을 시작한 두 왕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하지만 우리는 분열된 왕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이 어디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손길을 가졌습니다. 특히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히야와의 또 다른 만남. 여로보암이 이보다 몇 년 전에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는데, 새 옷을 입은 아히야가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북쪽의 10조각을 네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족. 여호와께서 그들을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의 손에서 찢어내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몇 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도 그의

장남인 왕세자가 병들었고,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에게 변장하고 실로로 여행을 떠나라고 말한다.

실로는 여로보암이 선택한 수도 디르사에서 남쪽으로 약 20~2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실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나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성막이 파괴되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여전히 신성함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Ahijah가 거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이 왜 아히야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 대답은 꽤 명확하다. 그렇지 않은가? 지난 주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여로보암이 두려움 때문에 금소 두 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왕국의 남쪽 가장자리인 베텔에, 다른 하나는 그의 왕국의 북쪽 가장자리인 단에 두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성한 달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아히야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장을 하고 내려가서 선견자 아히야에게 우리 아들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 보십시오.

죄가 당신을 바보로 만든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내 말은, 만약 그 남자가 선견자라면, 그 남자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자기 아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볼 수 있다면, 그는 자신과 대화하러 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다윗과 밋세바가 결혼한 지 6개월 후에 태어난 만삭아가 약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다고 다윗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히야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여자가 네게로 올 것이라 하신지라

그녀는 여로보암의 아내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당신이 그녀에게 그런 대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내가 무슨 말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올 이 여자는 네 왕의 아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예지는 메시지에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여로보암의 아내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도 알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네가 디르사로 돌아와 성읍으로 들어가면 네 아들이 죽게 되리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순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문밖에서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미래에 당신의 아들에게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으면서 왜 당신의 신원을 나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때 오는 메시지는 여로보암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으니 약속대로 그에게 주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나와 동행한 것 같이 네가 나와 함께 행하면 내가 네 나라를 장래에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들의 장남일 것입니다. 이것이 왕세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 여로보암 왕조의 미래이다.

아히야가 이르되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네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주어진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내 명령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네, 세 가지, 세 가지요.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세상을 만든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작동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이러한 규칙과 명령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인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곧 그분의 지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빗이 알았으니 난 그의 명령을 지킬게요.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하지만 밋세바는 어떻고,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규칙의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외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성격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의 성격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습니다. 네, 단순히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저거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난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알았어, 아니, 그 이상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지시만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언어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시나요?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나는 그쪽으로 향하고 싶다.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나는 그쪽으로 향하고 싶다. 마음의 헌신은 그를 따르고, 그가 있는 곳에 있고, 그가 하는 일을 하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눈에 딱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다윗처럼 걷는 것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맏소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느님? 여로보암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가 기꺼이, 의도적으로 야훼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ifs, ands 또는 buts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는 금송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의 일부이시며, 이 세상의 풍요의 일부이시며, 이 세상의 권세의 일부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야훼이십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의 일부이고 나는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했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릅니다. 얼마나 쉽게, 얼마나 쉽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그런 종류의 것들로 축소시키는가. 우리 집 어딘가에 야훼의 작은 동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그분을 이 세상의 일부로 만들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작은 축복 프로듀서이고, 우리는 그를 아이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종종 악의 본질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심한 부도덕을 보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를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신으로 삼고 세상의 중심을 나 자신과
나의 필요에 두기 때문에 가장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존심, 나, 나 그리고 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나다. 당신은 금속으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이 언어를
다시 한 번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목표, 목적을 섬기기
위해 나를 당신 뒤에 밀어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갈 곳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행동은 다윗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로보암이 행하지 아니한 일이요, 다윗이 행하지 아니한 일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스라엘 집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멸절하리라

사람이 똥을 불사르듯 여로보암의 집을 다 없어질 때까지 불사르리라. 하나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극, 끔찍한
비극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당신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를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사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나답은 암살당했고, 우리는 그의 매장에 대해 아무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그의 몸은 단순히 제외되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당신의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단 한 번만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사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응, 다른 사람이 오고 있어. 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너희 왕조는 사실 너희 아들 하나밖에 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므로 없어질 것이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리니 그로 하여금 물에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시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흠으시리라. 무엇? 아니요, 우리는 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남쪽의 바빌론에서 북쪽 시리아를 거쳐 남서쪽의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고대 세계를 휩쓸면서 이미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글쎄,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것들을 모두 함께 섞는 것입니다.

믹스 마스터에 넣고 균질화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기 약 9년, 10년, 190년 전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흠으실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을 뿌리 뽑아 유프라테 강 건너편으로 흠으실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요, 가나안의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숭배를 받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포플러나무 숲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성 성 회원과의 연관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다산성, 우리는 다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제 질문은, 음, 끝났나요?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시작과 끝이라고 불렀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었는가? 대답은 매우 확고한 '예'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매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하세요. 이미 완료된 거래입니다. 끝났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부심을 갖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교에서는 모든 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별 속에 있어요. 그것은 새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 결과가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바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있나요?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 나는 여러분이 그 길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길이 무엇이든, 조건이 무엇이든, 당신의 유전자가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당신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